



순창군의 특색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올해 귀농·귀촌유입 인구가 대폭 늘었다.

# 순창군, 귀농정책 효과 ‘톡톡’

## 지난해 귀농귀촌인구 620명 29% 증가 올해 말 1000명 전망 예상

순창군의 특색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올해 귀농·귀촌유입 인구가 대폭 늘었다. 군은 올해 10월말 기준 귀농귀촌인구가 536세대 87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 귀농귀촌인구 620명에 29%나 증가한 숫자다. 군은 꾸준히 귀농귀촌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귀농귀촌유입인구가 1,000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군은 황송주 군수 취임이후 다양한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분석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귀

농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 지역 귀농귀촌인들이 순창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소해 단기교육부터 6주 장기교육까지 귀농귀촌에 관한 원스톱 교육을 년 520명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 조례제정을 통해 각종 지원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 귀농인마을,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임시거주지를 만들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이어 소득사업비, 이사회, 집수리비,

귀농인 실습비 등을 지원해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재능기부 사업을 진행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어려운 분들의 집수리를 도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모범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귀농귀촌인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효과와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예비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 귀농귀촌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 임실군,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종합대책 마련

## 열화칼슘·소금 등 자재 확보·대형살포기·다목적 제설차량 등 장비 점검

임실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17년 3월15일까지 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에 발을 걸고 나섰다. 이를 위해 위안국도 4개소, 지방도 6개소와 군도를 포함한 관내 고갯길과 취약지점에 열화칼슘이 첨가된 모래주머니 2만개를 배치했다.

또한 열화칼슘 100톤, 소금 700톤 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했으며 대형살포기, 다목적 제설차량, 굴삭기,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포함한 장비 60여대를 점검하고 즉시 대응대세를 갖췄다. 폭설시 군부대,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상호연계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

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폭설시 도로상의 적설, 결빙 등을 초기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술적인 강설시 낙상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유·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추진’

## 영농 효율성 높이기 위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답 등에 소재하고 있는 유·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 253기에 1억6,900만원, 2015년에는 261기에 1억7,900원을 투자해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올해도 고창군사회복지실지구를 포함해 지역 내 농경지에 소재한 무연분묘 334기에 대하여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무연분묘 뿐만 아니라 농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유연분묘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연고자에게 분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진해서 이장해 지역 내 장사시설(추모의 집, 자연장)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

정했다. 또한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올 1월부터 화장할 경우 화장장료를 일반시신 7만원,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설장사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방한 사람의 연고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 임실군, 관촌지구 정수장확장사업 추진

임실군이 관촌권역 지방상수도 6개 읍·면(임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성수)지역을 대상으로 ‘관촌지구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정수장확장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생활용수 수요량이 오는 202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162억원을 투입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정수장확장, 상수관로 매설 등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3월 환경부에 놓여준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신청해 신규사업으

로 선정됐으며 내년까지 용역비 392천만원(국비 292천만원, 군비 1억원)을 확보해 사업에 착수, 오는 2020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증가하는 생활용수와 임실농공단지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것”이라며 “주민보건 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현장민원 민원봉사대 해단식 가져

## 소외계층 가정 방문 전기·가스·수도 등 설치

남원시는 희망 나눔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오지마을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그늘진 곳까지 세세히 살피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 민원봉사대’의 해단식을 17일 사재면에서 가졌다. 이날 해단식은 120민원봉사대 단원으로 활동해온 19명의 봉사대원과 이환주 시장이 참석하여 10개월간 60개 마을의 봉사활동을 통해 각자 활동소감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등 자유로운 소통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 봉사대’는 5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 매주 화·목요일 1개 마을씩 60개 마을을 선정, 자체 수리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 가정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전기, 가스, 수도, 칼집, 문풍지 설치 등 안전점검·보수를 실시하였고, 겨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마음 봉사도 실시하였으며, 고장 난 농기계 수리 등 632세대에 6,013건의 고

장 및 노후시설을 교체·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고해상도와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다. 특히, 선원사 자강면봉사대와 전라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빨래봉사대, 삼성·엘지전자 광주서비스센터에서 함께 참여하여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행정의 기쁨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20민원봉사대는 평상시에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발견·해소하고, 120민원 전화를 통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접수시 30분 이내에 현장에도착하여 처리한 생활민원 537건과, 생활현장부서 44회 439건을 해결했다. 이환주 시장은 “찾아가는 현장봉사를 통해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삼김 행정을 실천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개최

## 마을별 대표 자랑거리 선배

사단법인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대표 신승철)가 주최하는 ‘2016년 마을공동체 경진대회(부제: 제2회 마을만들기 토크톡!)’가 18일 군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총 21개 마을이 참여해 그동안 개별로 추진된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마을별 대표 자랑거리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인다. 또한 ‘필봉농악’ 길놀이 공연을 비롯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내 나이가 어때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마을 농특산물 전시·판매 부스로 운영된다. 경쟁을 통해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내년도 전라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하는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신승철 회장은 “마을만들기 선배마

을와 후배마을의 멘토·멘티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모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군수는 “집점 과소화되는 농촌마을의 현실 속에서 마을과 마을 간 협력으로 상호 상생하는 것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밀반찬 나누기

순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중국)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끼니를 챙겨먹기 힘든 독거노인 및 1인 장애인세대 12세대를 대상으로 매 주 1회 밀반찬을 나누고 있어 화제다.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이번 자원봉사에는 어려운 이웃들의 사랑을 듣고 외식업체 11곳, 자원봉사자 11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고 있다. 지역 내 외식업체가 봉사 당일 조리한 밀반찬을 협의체에서 제작한 도시락가방에 담아두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각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는 동시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애로사항도 파악해 관련 부서에서 알려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 및 봉사자들은 밀반찬을 배달한 후에 방문한 가구의 생

활상태, 자원봉사를 하며 느낀 보완할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번 밀반찬 나누기 자원봉사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밀반찬 나누기 봉사활동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기금을 마련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자원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협의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중국 위원장은 “비록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이웃에게 내 작은 손길이 여러 단체, 봉사자들에게까지도 그 온정이 전해져 널리 퍼뜨려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에 동참하려면 순창읍사무소 전화 063-650-593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 특별특리

## 운암면, 섬진강댐 주거환경개선 협약

임실군 운암면 행복보장협의체(회장 박현기)와 K-water 섬진강댐관리단(단장 나봉길)은 지난 16일 하운암 물문화관에서 섬진강댐 주변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박현기 회장은 “우리지역은 지난 1965년도에 섬진강댐 축조로 조상대로 경작한 농지가 수몰이 되어 배고픔을 달래고자 삶의 터전인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등 아픈 역사가 많은 고장”이라며 “K-water 섬진강댐관리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 확보 및 대상자 선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운암면행복보장협의체는 올해 사업으로 운암면 운중마을에 거주하는 이모씨(85세)와 17명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축자재를 확보해 보일러시공 및 출입문 사시 등을 보수하며 위원들은 각자 분야에서 노력봉사를 전개한다. 한편 운암면행복보장협의체와 K-water 섬진강댐관리단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올해 약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경찰, 전화금융사기 근절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지난 16일 순창읍 시장 주변에서 농촌지역 수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흥성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 여진회 골밀없이 시도되는 전화금융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20~50대들은 대출사기로 전향대출, 보증보험료를 담부하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사기에 당하고, 60대 이상은 자식을 핑계로 자식이 “돈을 빌려 못 갚았으니 대신 갚아”,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주라”라는 내용으로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최근 수매시기로 농촌이 흥성해짐을 이용해, 돈을 찾아 방문고나 집안 서랍에 보관해야 한다고 속여 직접 집을 찾아가서 절취하는 절취형 전화금융사기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금융사기는 무엇보다 전화를 받은 본인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의심되면 전화 바로 끊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목적으로 돈 입금 요구는 100% 사기”, “돈을 찾아 집안 방문고나 서랍장에 보관하라고 하는 경우도 100%사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규은 서장은 “풍성한 수매시기 모든 주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범죄 없는 순창이 되자”라며 농산물 절도 예방과 전화금융사기 근절 등 주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 고창소방서, 119안전캠페인 실시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지난 16일 고창초등학교 지도교사 및 119소년단원 등 30명이 참석하여 고창초등학교 정문 및 고창군청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19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정문 앞에서 119소년단원과 함께 어린이들의 불조심 생활화를 고취시키고자 불조심 유인물 배부 등 홍보활동을 벌였고 학교 주변 환경정리 및 어린이 생활위험 요소 발견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들은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수칙과 비상구 등 피난통로 확보, 주방소방시설 설치 촉진, 1차량 1소화기 비치, 화목보일러 사용자 주의사항,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소방차 길터주기 등이 적혀있는 홍보물을 전달했다. 겨울철은 실내에서 화기 사용이 많아 화재위험이 높은 만큼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창소방서장은 “어릴때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범을 보이는 소년단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